

발 간 동 록 번 호

11-1550000-001250-01

전주 경기전 정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1

본북대 학교



E00925188



전주 경기전 정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발 행 일 : 2011년 10월

발 행 처 : 문 화 재 청

실측조사 : 태창건축사사무소
Tel. (02)736-4702

인 쇄 : 동아원색
Tel.(02) 461-2271

(비매품·한정판)

목 차

제1장 실측조사 개요

1. 조사내용	33
2. 조사지침	34
3. 조사관계자	37
4. 조사방법	38

제2장 전주 경기전의 연혁 및 배치

1. 전주의 연혁과 지형지세	47
2. 단묘건축과 어용전(御容殿)	51
3. 어용전의 건립과 변천	52
4. 경기전의 창건과 변천	58
5. 경기전의 배치	64

제3장 전주 경기전 정전의 건축형식

1. 정전(正殿)	69
2. 정자각(丁字閣)	71
3. 동익랑·서익랑	72
4. 동월랑·서월랑	73
5. 내신문(內神門)과 첨각(添閣)	75
6. 외신문(外神門)	76

제4장 전주 경기전 정전 각부 정밀실측

1. 평면	81
2. 기단(基壇)	89
3. 초석	94
4. 기둥(柱)	103
5. 귀솟음	108
6. 평방·창방	110
7. 공포(栱包)	114
8. 정자각	135
9. 동익랑·서익랑	136
10. 동월랑·서월랑	136
11. 지붕 가구(架構)	137
12. 양곡(昂曲)	159

13. 안허리곡	165
14. 박공 · 풍판 · 목기연	170
15. 지붕마루	172
16. 기와	178
17. 감실(龕室)	181
18. 창호(窓戶)	182

제5장 전주 경기전의 단청

1. 단청문양 모사방법	187
2. 경기전 단청연혁과 사료조사	187
3. 단청문양의 구성과 배색	189
4. 경기전단청의 보존가치와 중요성	203

제6장 경기전의 의장과 경기전 대제

1. 경기전의 의장	209
2. 경기전 대제와 제물 진설	218

제7장 부속 건축물 및 석조물

1. 채실 건축물	243
2. 부속 건축물	266
3. 석조물(예종대왕 태실 및 비)	282

제8장 조경묘(肇慶廟)

1. 연혁	287
2. 배치	288
3. 건축구조 및 양식	289

제9장 종합고찰	303
----------------	-----

참고문헌	307
원색화보	310
단색화보	343
실측도면	385

하여 안팎으로 종이를 붙여서 모란(牧丹)을 그린다고 하였다.

(5) 흑장괘

흑장괘(黑長櫃)는 영정을 이안하거나 환안할 때 신연에 봉안하는 어진 보관함으로, 평상시의 의식에 주로 사용하였다. 흑장괘는 숙종 44년(1718)에 오동나무로 만들었고, 고종대에는 백자목²⁸으로 만들었다. 흑장괘 안에는 병충해를 막기 위해 향낭과 부용향낭을 각 2조씩 넣었다.

(6) 흑장통

흑장통(黑長筒)은 긴급 시에 재빨리 어진을 옮기기 위해 만든 어진 운반 통으로, 『경기전 의』에는 오동나무로 1개의 긴 통을 만들어, 안팎으로 흑칠을 하며, 홍보(紅緞)로 싸서 정전 안 동벽 앞 의장 아래에 두었다²⁹고 한다. 숙종 25년(1699)에 “영정을 이안할 때 흑장괘(黑長櫃)에 넣고 신연에 봉안하는 것은 평상시의 의식이다. 만약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하나의 흑장통(黑長筒)을 만들어 평상시에 진전 뒤쪽의 별전에 봉안했다가 급난이 있을 때에는 삼조(三朝)의 수용(肅容)을 모두 통 안에 봉안하면 편한 대로 갈 수 있으니, 실로 만전을 위한 것이다.”³⁰고 하여, 경기전의 흑장통도 전라도에 분부하여 제작하게 하였는데, 이것도 이 때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 경기전 대제와 제물 진설

1) 경기전 대제의 역사

경기전의 제향은 열성조의 진전인 선원전과 영희궁, 태조 진전인 영흥의 준원전과 같이 행례되었다. 그래서 속절(俗節)에 지내는 제향과 이·환안 시에 지내는 작헌례(酌獻禮),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삭망(朔望) 분향례 등이 있었다.

속절, 즉 정조(正朝:설), 한식(寒食), 단오(端午), 추석(秋夕), 동지(冬至), 납일(臘日)에 지내는 제향은 절향(節享) 또는 절사(節祀)라고 하는데, 정기적인 행사로서 삼헌(三獻) 및 음복례(飮福禮)까지 모든 제례 절차를 행하였다.

반면에 작헌례는 어진의 이안, 또는 환안 때 지내는 일종의 고유제(告由祭)로서, 속절에 지내는 제향과 달리 일헌(一獻)에 음복례가 없는 간단한 의식이었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삭망분향례는 제수의 진설 없이 간단하게 분향 및 봉심을 겸하는 의식이었다.

1897년부터는 대한제국이 되면서 “태묘(太廟)의 남전(南殿), 경기전(慶基殿), 준원전(濬源殿), 선원전(璿源殿), 화령전(華寧殿)의 기물들과 의장들은 다 천자(天子)의 의식 절차대로 쓰되, 고친 것에 대하여 고유하는 등의 절차는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택일하여 시행하게 하라.”³¹는 전교(傳敎)에 의해 천자(天子)의 예(禮)에 맞게 경기전의 기물과 의장 등도 바꾸어 제

28 『御眞模寫都監儀軌』 1872년 4월 19일 품목질.

29 『慶基殿儀』 影幀儀.

30 『承政院日記』 숙종 25년 윤7월 13일(기유).

31 『高宗實錄』 권36, 고종 34년/대한 광무(光武) 1년 10월 20일(양력).

향을 지냈다.

그러나 1908년에 제정한 「제사제도칙령」에 의해 경기전에는 1년에 두 번, 청명과 추석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³² 이에 1932년의 『현행제사』 및 1937년의 이왕직 예식과에서 정한 『홀기진설도(笏記陳設圖)』에 의하면 '준원전청명추석제향홀기 경기전동(潛源殿清明秋夕祭享笏記 慶基殿同)'이라 하여 경기전에서도 준원전에 준하여 청명과 추석에 제향을 지내도록 정해졌다. 그러다가 광복 이후에는 동지에 한번 제향을 지냈고, 1978년부터는 동지 날씨가 추워서 음력 9월 9일(중양일, 중구일)로 바꾸어 중양절사를 지냈다. 2002년에는 '중양대제'로 개칭하였고, 2003년부터는 황제가 친히 행하는 제향 절차로 개정하고, 현재는 '경기전 대제'라 하여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제향을 지내고 있다.

2) 경기전 대제의 절차 변화

(1) 『국조오례의』 진전 제향

경기전 제향은 『국조오례의』 '속절향진전의(俗節享眞殿儀)'에 따라 진행되었다. 진전 제향은 종묘 제향과 달리 속제(俗祭)로 분류되어 있지만, 왕이 직접 행차하거나 관리 등이 파견되어 행해졌다. 그래서 진설의 내용이 국가제사와 다르기는 하지만, 행례 절차는 국가제사에 준하여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먼저 『국조오례의』 '속절향진전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속절(俗節 : 名日 ; 설,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납일)에 행하는 진전 제향은 제향일 축시(丑時) 1각(一刻)부터 시작된다. 그전에 전사(殿司)가 문을 열고 휘장을 걸으며, 제기에 제수를 담아 제사 준비를 한다. 그리고 제사를 진행할 찬자와 알자가 먼저 들어와 4배를 하고 제자리에 서며, 1각이 되어 제향관이 입장하여 먼저 4배를 하면, 헌관이 입장하여 제자리에 나아가 4배를 하는 것으로 제향이 시작된다. 이어 진찬(進饌)과 같은 의미로, 진선(進膳)을 한다. 아마도 이때 미리 진설한 제기의 뚜껑을 열거나, 아니면 제수에 먼지 등이 가라앉지 않도록 한지 등으로 싸둔 복지(覆紙 ; 福紙) 등을 벗기는 것으로 진선을 대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초헌례를 행한다. 즉 초헌관이 준소에서 술을 따르는 것을 지켜보는 감잔(監盞)을 한 이후에 신위전에 나와 향을 세 번 올리는 삼상향(三上香)을 하고, 첫 번째 잔을 올리는 것이다. 이어 대축이 신위전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축문을 읽고, 이것이 끝나면 초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펴고(俯伏興平身) 제자리로 내려간다. 아헌례와 종헌례도 초헌례와 같은데, 다만 삼상향과 독축은 하지 않는다.

삼헌이 끝나면 음복례(飮福禮)를 행한다. 초헌관이 음복위(飮福位)에 나아가 술을 조금 마신 후 제자리로 내려가면 초헌관 이하 재위자 모두 4배를 한다. 이어 잠시 후에 다시 헌관이 사신(辭神)의 의미로 4배를 하고 나가면, 전사관 등이 차례로 4배를 하고 나간다. 그리고 제사상의 음식을 물리며(撤饌), 문을 닫고(闔戶) 나간다. 이후에 대축이 축문을 땅에 묻는데, 이때 땅에 헌관이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제향이 끝난 이후에 대축이 마무리하는 것이다.

32 『純宗實錄』 권2, 순종 원년/대한 융희(隆熙) 2년 7월 23일(양력).

이러한 진전의 속절 제향이 종묘 제향 등 국가제사와 다른 점은 신관례(晨裸禮)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즉 신을 맞이하는 강신(降神)과 전폐(奠幣) 절차가 없고, 신이 배푸는 수조(受胙)의 절차도 없다. 이러한 연유는 경기전이 태조의 어진을 봉안한 진전이고, 진전은 처음에 불교의 영향으로 건립된 속제(俗祭)의 내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조오례의』 '속절향진전의(俗節享眞殿儀)'를 근거로 하여 제관의 위치와 방향을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먼저 헌관위는 위 그림과 같이 동쪽 계단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음복위를 당상(堂上) 앞 기둥 바깥 근처의 동쪽에 서향으로 하였다. 그리고 집사자위는 헌관의 뒤쪽 조금 남쪽에 서향으로, 찬자와 알자위는 동쪽 계단 서쪽에 서향으로 하였다. 그러나 행례상에 헌관은 서향하여 4배를 하는 반면에 찬자와 알자, 그리고 집사자는 계단 사이의 배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4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동쪽 계단으로 올라와 신위전에 나아가기 전의 준소상(B)은 헌관이 서향하여 술 따르는 것을 지켜보며, 준소상의 남북에 집준자(執樽者)와 잔을 드는 집사자가 마주보고 서서 술을 잔에 따르기 때문에 정전 동문 밖에 설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신위전의 제사상에 이르러서는 헌관이 북향하여 무릎을 꿇으면, 향을 받는 집사자와 술잔을 받는 집사자가 동편에 서향하고, 향로를 올리는 집사자와 술잔을 올리는 집사자는 서편에서 동향하여 선다. 반면에 음복위에서는 준소상과 마찬가지로 헌관은 서향하여 무릎을 꿇고 음복례를 행하고, 음복 잔을 가져오는 대축은 북향하여 술잔을 헌관에게 전해준다.

이러한 행례 동선을 보면, 헌관은 물론 제집사가 정전에 오르내리는 계단은 모두 동쪽 계단이다. 그래서 망예위를 제외하고 모든 행례의 위치 및 기물은 대부분 동쪽에 위치하고 있음은 물론, 헌관 및 제집사의 위치가 모두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동쪽 계단을 중심으로 아래에는 관세위(A)가, 정전 동문 앞에는 준소상(B) 및 음복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동쪽 계단을 통해 오르내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국조오례의』에는 정전 출입에 구체적으로 동문과 서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전 중앙의 신위를 중심으로 동문으로 들어갔다가 서문으로 나오되, 문 밖에서는 모두 동쪽 계단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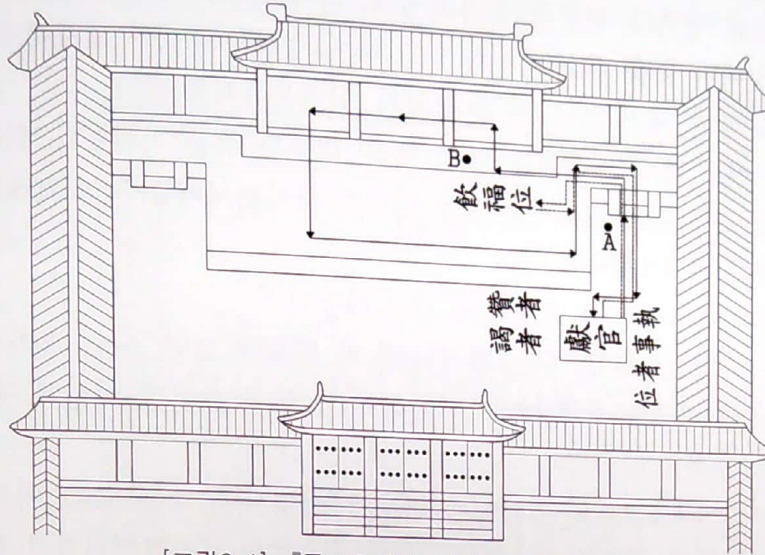
(2) 『경기전의』 대향의

『경기전의(慶基殿儀)』 대향의(大享儀)는 크게 『국조오례의』 「속절향진전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나, 일부 『국조속오례의』 「친향영희전의」 내용도 따르고 있다. 영조(英祖)대 『국조속오례의』에 이어 대한제국기 『대한예전』도 『국조오례의』 「속절향진전의」를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의식을 추가한 것이기는 하지만, 열성조의 진전인 영희전(永禧殿)의 6번의 제향에 한번은 왕이 친히 행하는 의례로 개정하였기 때문에, 그전의 진전도 이 제향 의식에 따라 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증보문헌비고』(1908년)에도 경기전의 사향(祀享) 시일(時日) 및 의절(儀節)은 영희전과 같다³³고 하였듯이, 그 의례 내용이 모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의 진전 제향이 『국조오례의』의 제향과는 크게 다를 것은 없다. 다만 왕이 직접 행하

33 『增補文獻備考』 권59, 禮考 6, 影殿 慶基殿.

는 제사(親祀)였기 때문에 왕에게 행사를 하도록 청하거나, 왕이 잠시 머무는 소차방이 있어서 행례상에 그에 따른 절차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진설도에는 잔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의주(儀註)에는 '헌작(獻爵)'등의 작(爵)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경기전의』 「대향의」에도 그에 따른 일부 행례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먼저 『경기전의』 「대향의(大享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1] 『국조오례의』 진전의 제례 동선도

『慶基殿儀』 대향의(大享儀)

[『국조오례의』에 있다. 고유제(告由祭) 및 이·환안제도 같은데, 다만 일헌(一獻)에 음복(飲福) 절차만 없다.]

찬자(贊者)와 알자(謁者)가 먼저 정전 배위에 나아가 4배를 한다. 전사관(典祀官)과 제집사(諸執事)는 알자의 인도 하에 정전 배위에 나아간다. '배'를 창(唱)하면, 전사관 이하 모두 4배를 한다. 이어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각자 제자리로 나아간다. 헌관은 알자의 안내로 제자리(관위)에 나아간다. '배'를 창하면 헌관은 4배를 한다. 알자가 헌관의 좌측에 나아가 "유사근구 청행사(有司謹具請行事)"라고 고한다.

전사(殿司)는 진선(進膳)을 한다.

초헌례(初獻禮)를 행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는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동쪽 계단(東階)으로 올라와 준소(樽所)에 이르러 서향하여 선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신위전(神位前)에 이르러 무릎을 꿇는다. 헌관은 세 번 향을 올리며(三上香), 이어 잔을 올리고(奠爵),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무릎을 꿇는다. 대축이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펴고, 알자의 인도 하에 정전을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아헌례(亞獻禮)를 행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동쪽 계단(東階)으로 올라와 준소(樽所)에 이르고 서향하여 선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신위전(神位前)에 이르러 무릎을 꿇는다. 헌관은 작을 올리고(奠爵),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펴고 알자의 인도 하에 정전을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종헌례(終獻禮)를 행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동쪽 계단(東階)으로 올라와 준소(樽所)에 이르고 서향하여 선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신위전(神位前)에 이르러 무릎을 꿇는다. 헌관은 작을 올리고(奠爵),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펴고 알자의 인도 하에 정전을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음복례(飲福禮)를 행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음복위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음복을 하며,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펴고 알자의 인도 하에 정전을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4배를 창하면, 헌관은 4배를 하며, 예가 끝나 '배'를 창하면, 헌관은 4배를 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망예위에 나가, 축문 태우는 것을 지켜본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정전을 나가고, 전사관과 제집사는 모두 배위로 돌아와 4배를 하고 차례대로 나간다. 찬자와 알자도 모두 4배를 하고 나간다.

전사는 정전 안의 제사상을 물리고 문을 닫고 나간다.³⁴

이상의 내용을 『국조오례의』 「속절향진전의」와 비교해 보면, 다만 홀기처럼 행례 절차를 자세하게 적었고, 제향 내용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 망료 등으로 행례 내용을 구분하고 있다.

『경기전의』에서는 무엇보다도 헌관 4배 이후에 '청행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제사처럼 왕에게 행사를 시작하도록 청하는 의식으로, 『국조속오례의』 「친향영희전의(親享永禧殿儀)」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진전의 제향은 속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잔(盞)을 사용한다. 그런데 『경기전의』 진설도에는 3기의 은잔(銀盞)이 표기되어 있지만, 홀기 내용에는 작(爵)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국조속오례의』 「친향영희전의(親享永禧殿儀)」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친향영희전의」 진설도에도 3기의 잔이 표기되어 있지만, 행례상의 의주에는 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조오례의』에서는 헌관이 음복례 이후에 정전을 나가는데, 『경기전의』에서는 망료 이후에 정전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국조오례의』에서는 음복례 이후에 제사가 모두 끝나는 것으로 여겨 헌관 이하 모두 사신(辭神)의 예를 행하고 나가는 반면에, 『경기전의』에서는 음복례 후에 망료까지 헌관이 행하기 때문에 전사관 이하 사신의 예는 망료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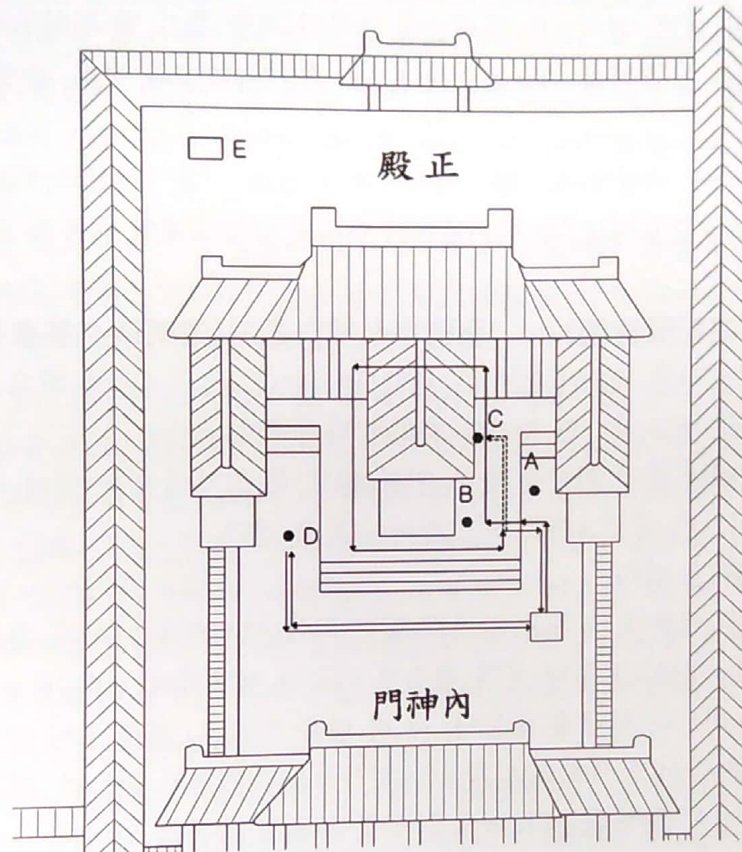
망예의 경우도 『국조오례의』나 『국조속오례의』에서는 단지 축문을 감(坎)에 묻었던 것인데, 이 절차도 모든 의식이 끝난 이후에 행해졌다. 그러나 『경기전의』에서는 음복례 이후의 절차로 '가료(加燎)'라고 하여 축문을 태우는 망료(望燎)를 행하였으며, 이 의식이 끝난 이후에 헌관 이하 정전을 나가고, 이어 제사를 물리고 문을 닫고 나간다. 이것은 영조대 이후 망예례를 망료례로 고치고, 헌관이 직접 망료를 행하게 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경기전의』 「대향의」에 있어서 제관의 위치와 방향을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경기전의』에는 헌관위 및 음복위, 집사자위, 찬자와 알자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행례 내용과 『국조오례의』의 내용을 토대로 추정해 보면, 먼저 초헌관이 관세위에 와서

34 『慶基殿儀』 大享儀

손을 씻고, 이어 동쪽 계단을 통해 준소에 나아가 서향한 것으로 볼 때, 관세위(A)는 동쪽 계단 아래에, 준소(B)는 동쪽 계단 위쪽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때에는 정자각이 정전 앞에 있고, 정자각 좌우로 동쪽 계단과 서쪽 계단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쪽 계단을 통해 정자각을 오르내렸을 것이다.³⁵ 반면에 망료에는 예감³⁶(E)이 뒤뜰 서쪽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망료위(D)는 정자각 서편에 위치하였을 것이다.



[그림6-2] 『국조오례의』 진전의 제례 동선도

또한 『경기전의』에는 헌관과 제집사가 어느 방향에서 4배를 하는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국조오례의』나 『국조속오례의』처럼 헌관은 서향하여 4배를, 찬자와 알자 그리고 집사자는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4배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준소상이나 제상, 음복위 의 경우에 제관의 위치 및 방향도 『국조오례의』와 마찬가지로였을 것이다. 하지만, 행례 동선의 경우는 정전 앞에 정자각이 나와 있고, 준소상은 동쪽 계단 위 정자각 안에 설치되어 있으며, 정자각 동쪽 계단을 주로 오르내렸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좀 더 정방형의 형태로 이어졌을 것이다.

지금 현행의 중앙대제의 동선을 보더라도 주로 정자각 동쪽 계단을 통해 오르고, 정전의 경우도 정전 중앙의 신위를 중심으로 동문으로 들어갔다가 서문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다시 동쪽

35 『國朝五禮儀』에는 “제집사가 동쪽 계단으로부터 오르고 내려온다.”고 하였는데, 『國朝續五禮儀』에는 “헌관은 동쪽 계단으로부터 오르고 내려오며, 나머지는 모두 서쪽 계단으로부터 오르고 내려온다.”고 하였다. 하지만 『大韓禮典』에는 『國朝續五禮儀』와 같은 내용임에도 이러한 조항이 빠져 있다.

36 『慶基殿儀』 殿宇儀에는 ‘望」石面’으로 되어 있고, 『肇慶廟慶基殿圖形』에는 ‘燒祝石’으로 되어 있다.

神)의 의미로 잠시 동안 머문 후에 다시 헌관이 4배를 하거나, '예필'이라 하여 예가 끝난 것으로 헌관이 4배를 하는 것에 반해, 중앙대제에서는 『홀기진설도』의 내용을 따라 사신의 의미로 손가락과 젓가락을 물리고, 뚜껑을 덮은 후에 헌관 및 참반원이 4배를 하고 있다.

또한 『홀기진설도』에서는 신위전의 휘장을 헌관이 판위에 나오기 전에 하고 있는데, 중앙대제에서는 헌관과 참반원이 제자리에 나온 후에 정전의 문을 열고 휘장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홀기진설도』에서는 망료례가 끝나 헌관 및 제집사가 나간 후에 신위전의 휘장을 내리고, 제사상의 음식도 물리며 퇴장을 하는데, 중앙대제에서는 망료례가 끝나 헌관에게 예필을 고하면 바사로 신위전의 휘장을 거두고 문을 닫는다. 이에 제집사 및 집례, 찬의는 문을 닫은 채 4배를 하고, 나중에 제사상의 음식을 물리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

『홀기진설도』에서는 잔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중앙대제에서는 작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경기전의』 「대향의」 및 『대한예전』에도 나타난 것이지만, 대한제국기의 황제국의 위상에 맞게 제기를 바꾸면서 잔 대신에 작을 사용하거나, 현행 능 제향과 같이 제기를 사용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2002년 이전의 홀기 내용도 2003년부터 황제가 직접 행하는 홀기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2002년에 비해 초헌관의 제복이 황제가 입는 12장복 및 12류의 면류관으로 바뀌었고, 행례 내용도 그에 준하게 일부 개정되었다.

먼저 홀기 내용에 앞서 전향례(傳香禮)를 행한다. 초헌관, 대축관, 찬의가 재실에 마련된 향안청에 들어가는데, 초헌관은 북쪽에, 대축관은 맞은편에, 찬의는 왼쪽에 앉는다. 대축관이 미리 준비한 축문을 초헌관에 주면, 초헌관을 이를 확인하고, 다시 대축관에게 돌려준다. 대축관은 축문을 받아 황색 보자기에 쓴 다음 찬의에게 전하면 찬의는 이를 받아 먼저 밖으로 나간다.

봉등제관이 청사초롱을 들고 앞서 나가면 축문을 받은 찬의를 따라 대축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감제관, 집례, 봉향관, 봉로관, 사준관, 외봉관, 내봉관, 좌전관, 우전관 순으로 정전으로 나아간다. 이 때 찬례는 초헌관의 오른편에 서서 따르고, 축문을 든 찬의만이 신문을 통해 정전 안으로 들어간다.

경기전에 도착하면 집례와 찬의는 먼저 배위에 나아가 국궁 4배를 하고, 집례는 찬의의 인도를 받아 창홀(唱筓) 자리로 나아가 홀기를 받는다. 이후 집례의 창홀에 따라 행례가 시작되는데, 2009년의 경기전 대제의 행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사진의 내용은 2006년에 촬영한 것임)

2009년 중앙대제(重陽大祭) 홀기

- 집례와 찬의가 먼저 절하고 자기 위치로 가시오.
- 악사장은 악사와 일무원을 거느리고 봉무할 자리로 나가시오.
- 모든 집사는 절할 자리로 들어서서 북쪽을 향하여 서시고 홀을 꽂으시오.
- 무릎을 꿇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시오.
- 홀을 잡으시오.
- 찬의는 모든 집사를 관세위로 인도하여 손을 씻으시오.
- 이어 동계로 올라가 각자 자기가 봉무할 자리로 가시오.
- 찬의는 아헌관, 종헌관을 인도하여 절할 자리로 들어 서쪽을 향해 서도록 하시오.
- 참반원은 절할 자리로 들어 북쪽을 향하여 서시오.
- 대축관은 문을 열고 휘장을 걷으시오.
- 찬례는 초헌관에게 소차에서 나오시도록 청하시오.
- 찬례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판위에 이르러 북쪽을 향하여 서도록 하시오.
- 찬례는 초헌관에게 행사 시작을 청하시오.
- 보태평악을 연주하고, 일무원은 보태평의 무(문무)를 추시오.
- 찬례는 초헌관에게 무릎을 꿇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 서시도록 하시오.
- 찬의는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시고 홀을 꽂으시오.
- 무릎을 꿇어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시오.
- 홀을 잡으시오.
- 참반원은 무릎을 꿇어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시오.
- 악을 그치시오.
- 대축관은 나아가 제상에 씌어둔 봉지를 벗기시오.

◎ 初獻禮

- 초헌례를 행하시오.
- 찬례는 초헌관을 관세위로 인도하여 손을 씻게 하시오.
- 찬례는 초헌관을 동쪽 계단으로 인도하여 준소에 이르러 서향으로 서게 하시오.
- 보태평악을 연주하고, 일무원은 보태평의 무를 추시오.



[사진6-1] 제향에 앞서 축문과 향을 전하는 의식



[사진6-2] 초헌관 헌작

- 제주를 작에 따르는 것을 살피시오.
- 제주를 작에 따르시오.
- 찬례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어진 앞에 나아가 꿇어앉도록 하시오.
- 초헌관은 향합의 향을 세 번에 나누어 향로에 넣으시오.
- 작을 받들어 올리시오.
- 대축관은 밥그릇 뚜껑을 열어 순가락을 쫓고 젓가락 손잡이가 서쪽을 향하도록 놓으시오.
- 찬례는 초헌관에게 부복했다가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 무릎을 꿇어앉게 하시오.
- 모든 헌관, 집사 및 참반원은 모두 무릎을 꿇어앉으시오.
- 악을 그치시오.
- 대축관은 동쪽을 향해 꿇어 앉아 축문을 읽으시오.
- 악을 연주하시오.
- 찬례는 초헌관에게 부복했다가 일어나 서도록 하시오.
- 모든 헌관, 집사 및 참반원은 일어서시오.
- 참례는 초헌관을 서쪽 문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제자리로 내려가시오.
- 악을 그치시오.
- 찬례는 초헌관을 소차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오.



[사진6-3] 순가락을 수라기에 쫓고 젓가락을 바로 놓는
삼시정저(挿匙正箸)



[사진6-4] 독축



[사진6-5] 초헌례를 마치고
소차방(小次房)에 있는 초헌관



[사진6-6] 아헌관 감작(監爵)

◎ 亞獻禮

- 아헌례를 행하시오.
- 찬의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 손을 씻으시오.
- 이어 아헌관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준소 앞에 이르러 서쪽을 향해 서시오.
- 정대업악을 연주하고 일무원은 정대업 무를 추시오.
- 제주를 작에 따르는 것을 살피시오.
- 제주를 작에 따르시오.
- 이어 어진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도록 하시고 홀을 쫓으시오.
- 작을 받들어 올리시오.
- 아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서시오.
- 홀을 잡으시오.
- 찬의는 아헌관을 서쪽 문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제자리로 내려가시오.
- 악을 그치시오.

◎ 終獻禮

- 종헌례를 행하시오.
- 찬의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가 손을 씻으시오.
- 이어 동쪽 계단으로 인도하여 준소 앞에 이르러 서쪽을 향해 서시오.
- 정대업악을 연주하고, 일무원은 정대업 무를 추시오.
- 제주를 작에 따르는 것을 살피시오.
- 제주를 작에 따르시오.
- 이어 어진 앞에 나아가 꿇어앉도록 하시고 홀을 쫓으시오.
- 작을 받들어 올리시오.
- 종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서시오.
- 홀을 잡으시오.
- 찬의는 종헌관은 서쪽 문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제자리로 내려가시오.
- 악을 그치시오.
- 찬례는 초헌관에게 소차에서 나와 판위에 이르도록 하시오.
- 초헌관은 무릎을 꿇어 네 번 절하고 일어서시오.
- 찬의는 아, 종헌관을 인도하시고 홀을 쫓으시오.
- 무릎을 꿇어 네 번 절하고 일어서시오.
- 홀을 잡으시오.



[사진6-7] 종헌관 헌작



[사진6-8] 초헌관 음복례



[사진6-9] 음복례 후에 수라기 뚜껑을 덮는 집사

◎ 飲福禮

- 음복례를 행하시오.
- 찬례는 초헌관을 동쪽 계단 위의 음복위로 인도하여 서쪽을 향해 서시오.
- 대축관은 준소로 나아가 작을 받들고 다시 음복위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꿇어앉으시오.
- 초헌관에게 주시오.
- 초헌관은 받아 조금 마시시오.
- 대축관은 빈잔을 받아 준소에 도로 놓으시오.
- 찬례는 초헌관에게 부복하였다가 일어서시도록 청하시오.
- 찬례는 초헌관을 도로 판위로 인도하시오.
- 대축관은 수저를 거두고 뚜껑을 덮으시오.
- 찬례는 초헌관에게 무릎을 꿇고 네 번 절하고 일어서시도록 하시오.
- 찬의는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시고 홀을 쫓으시오.
- 무릎을 꿇어 네 번 절하고 일어서시오.
- 홀을 잡으시오.
- 참반원은 무릎을 꿇어 네 번 절하고 일어서시오.
- 대축관은 휘장을 내리고 문을 닫으시오.

◎ 望燎禮

- 망료례를 행하시오.
- 찬례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료위에 이르러 북향으로 서도록 하시오.
- 대축관은 축을 받들고 망료위에 나가시오.
- 축을 태우시오.
- 대축관은 축을 받들고 료소에 가 태우시오.
- 대축관은 초헌관의 좌측에 서서 예를 마쳤음을 고하시오.



[사진6-10] 초헌관 헌작



[사진6-11] 집사(집례와 찬인) 4배

- 찬례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가시오.
- 찬례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소차로 들어가시도록 하시오.
- 모든 집사는 홀을 잡으시오.
- 절할 자리로 돌아가시오.
- 모든 집사는 홀을 쏘시오.
- 모든 집사는 무릎을 꿇어 네 번 절하고 일어서시오.
- 홀을 잡으시오.
- 모든 예를 마쳤습니다.
- 집례와 찬의는 제자리로 내려와 서시오.
- 무릎을 꿇고 네 번 절하고 일어서시오.³⁸

38 不唱 △執禮贊儀先拜就位 ○ 樂師帥樂員佾舞員入就位 ○ 諸執事入就拜位北向立 搢笏 ○ 鞠躬四拜興平身 ○ 執笏 ○ 贊儀引諸執事詣盥洗位祝訖 ○ 仍詣陞自東階各就位 ○ 贊儀引亞獻官終獻官入就拜位南向立 ○ 參班員入就拜位北向立 ○ 大祝啓門捲帳 ○ 贊禮啓請初獻官出小次 ○ 贊禮導初獻官詣版位北向立 ○ 贊禮啓請行事 ○ 保太平之樂保太平之舞作 ○ 贊禮啓請初獻官鞠躬四拜興平身 ○ 贊儀引亞獻官終獻官 搢笏 ○ 鞠躬四拜興平身 ○ 執笏 ○ 參班員鞠躬四拜興平身 ○ 樂止 ○ 大祝官進膳

○ 初獻禮 ○ 行初獻禮 ○ 贊禮導初獻官詣盥洗位祝訖 ○ 贊禮導初獻官陞自東階詣罇所南向立 ○ 保太平之樂保太平之舞作 ○ 監爵 ○ 酌酒 ○ 贊禮導初獻官詣辟容前跪 ○ 三上香 ○ 執爵獻爵 ○ 大祝官啓蓋挿匙西柄正箸 ○ 贊禮啓請初獻官俯伏興少退跪 ○ 諸獻官諸執事及參班員皆俯伏 ○ 樂止 ○ 大祝官東向跪讀祝 ○ 樂作 ○ 贊禮啓請初獻官俯伏興平身 ○ 諸獻官諸執事及參班員興平身 ○ 贊禮導初獻官出自西門降復位 ○ 樂止 ○ 贊禮導初獻官入小次

○ 亞獻禮 ○ 行亞獻禮 ○ 贊儀引亞獻官詣盥洗位祝訖 ○ 仍詣陞自東階詣罇所南向立 ○ 定大業之樂定大業之舞作 ○ 監爵 ○ 酌酒 ○ 仍詣辟容前跪 搢笏 ○ 執爵獻爵 ○ 亞獻官俯伏興平身 ○ 執笏 ○ 贊儀引亞獻官出自西門降復位 ○ 樂止

○ 終獻禮 ○ 行終獻禮 ○ 贊儀引終獻官詣盥洗位祝訖 ○ 仍詣陞自東階詣罇所南向立 ○ 定大業之樂定大業之舞作 ○ 監爵 ○ 酌酒 ○ 仍詣辟容前跪 搢笏 ○ 執爵獻爵 ○ 終獻官俯伏興平身 ○ 執笏 ○ 贊儀引終獻官出自西門降復位 ○ 樂止 ○ 贊禮啓請初獻官出小次詣版位 ○ 贊禮啓請初獻官鞠躬四拜興平身 ○ 贊儀引亞獻官終獻官 搢笏 ○ 鞠躬四拜興平身 ○ 執笏 ○ 贊禮啓請初獻官出小次詣版位 ○ 贊禮啓請初獻官鞠躬四拜興平身 ○ 贊儀引亞獻官終獻官 搢笏 ○ 鞠躬四拜興平身 ○ 執笏 ○ 參班員鞠躬四拜興平身 ○ 大祝降帳閉門

○ 望燎禮 ○ 行望燎禮 ○ 贊禮導初獻官詣望燎位北向立 ○ 大祝官捧祝詣望燎位 ○ 可燎 ○ 大祝官捧祝焚於燎所 ○ 大祝官詣初獻官之左告禮畢 ○ 贊禮導初獻官還版位 ○ 贊禮導初獻官入小次 ○ 諸執事 執笏 ○ 俱復拜位 ○ 諸執事 搢笏 ○ 鞠躬四拜興平身 ○ 執笏 ○ 禮畢 △ 不唱 執禮贊儀降復位 △ 不唱 鞠躬四拜興平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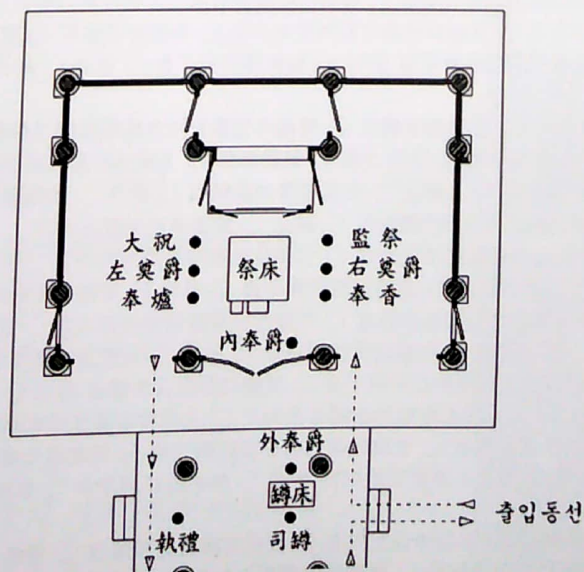
2009년의 홀기를 2002년 이전의 홀기 내용과 비교해 보면, 먼저 찬의(贊儀)가 헌관을 인도하는 것에서, 초헌관은 찬례(贊禮)가 안내하며, 이하 아헌관, 종헌관은 찬의가 인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신위전의 휘장을 거두는 것도, 종전의 헌관 및 참반원이 제자리에 나아간 후에 문을 열고 휘장을 거두는 것에서, 2003년부터는 아헌관과 참반원이 모두 제자리에 나아간 후, 초헌관이 판위에 나아가기 전에 행하고 있다. 또한 찬례가 초헌관에게 나아가 행사를 청하면, 초헌관이 먼저 4배를 하고, 이어 아헌관, 참반원 순으로 4배를 하며, 초헌례가 끝난 후에 초헌관이 잠시 머물도록 한 소차도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행례의 변화는 모두 황제의 친행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외에 종헌례가 끝난 이후에 초헌관이 다시 판위에 나와 헌작 후 배례의 의미로 4배를 하고, 아헌관과 종헌관도 차례로 4배를 한다. 그래서 음복례 후에 강복위하여 4배를 하지 않고, 바로 사신의 의미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물리며 수라기 뚜껑을 덮은 후에 차례로 4배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예가 모두 끝나는 것으로 여겨 신위전의 휘장을 내린 이후에 망료례를 행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종묘대제와 같이 악사와 일무원이 나와 절차마다 음악을 연주하고 일무를 추는 것을 추가하였다.

현행 『중양대제』 홀기에 나와 있는 「제관위치도」를 보면, 대략의 제관 위치 및 동선을 알 수 있다. 헌관의 위치를 보면, 초헌관의 소차는 동익랑에서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아헌관과 종헌관은 동월랑에서 서향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초헌관은 판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4배를 하고, 아헌관과 종헌관은 서향하여 4배를 한다. 반면에 제집사와 참반원은 북향하여 4배를 한다.

홀기에는 먼저 초헌관이 관세위에 와서 손을 씻고, 이어 동쪽 계단을 통해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였다가 신위전에 나아가며, 헌작이 끝나면 서문을 통해 나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에 정자각의 동쪽 계단을 통해 올라와 정자각에 위치한 준소 앞에 서향하여 서며, 다시 동문을 통해 신위전에 들어가는데, 이 때 작(爵)은 집사자를 통해 신문으로 들어간다. 독축 후에 헌관은 다시



[그림6-3] 『국조오례의』 진전의 제례 동선도

서문을 통해 나오고, 아래 그림과 같이 정자각 기둥을 돌아 다시 동쪽 계단으로 내려와 소차방으로 간다. 아헌관과 종헌관도 이와 같은 동선으로 이동하는데, 다만 소차방으로 가지 않고, 동월랑의 제자리로 돌아온다.

음복례의 경우도 초헌관은 소차에서 출발하여 다시 정자각의 동쪽 계단을 통해 올라 정전 앞 동쪽에 위치한 음복위에 서향하여 무릎을 꿇으며, 대축관은 준소에서 음복작을 받들어 초헌관의 왼편에서 북향하여 무릎을 꿇고 음복작을 전한다. 음복례가 끝나면 초헌관은 다시 정자각 동쪽 계단을 통해 판위로 가서 4배를 하고, 이어 망료례를 위해 정자각 서편에 마련한 망료위에 가서 북향하여 선다. 망료례가 끝나면 다시 판위로 돌아왔다가 다시 소차에 가서 휴식을 취한다. 이와 같이 현행의 중앙대제의 행례 동선도 『경기전의』에서 추정된 바와 같이 정방형의 형태로 동쪽 계단을 주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3) 경기전 제기와 제물 진설의 변화

(1) 경기전의 제기

경기전은 진전으로서, 제향 역시 속제(俗祭)로 분류되어 종묘제사와 다르게 작(爵) 대신에 잔(盞)을 올린다든지, 희생이나 날 음식 대신에 수라와 차 등이 진설되는 등 속제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제기의 내용도 일반 국가제사와 달랐다. 그러나 1908년에 6명절의 절사가 청명과 추석으로 축소되고, 제수 진설의 내용도 변화되면서 경기전에 사용하는 제기도 일부 변화되었다.

(2) 제사상

제수를 진설하는 상으로, 신위전에 2개의 제사상을 맞대어 놓는다. 속제의 경우 주칠을 허용하였고, 찬탁(饌卓)과 협탁(挾卓)으로서 제수를 구분하여 진설하였다. 제향 때에는 제사상 위에 휘건(揮巾)을 두르고 좌면지(坐面紙)를 깔아서 사용한다.

(3) 향로상과 축상

향로상은 제향 시 향로와 향합을 놓은 상으로, 향상이라고 하며, 축상에 비해 높다. 향로는 향을 넣어 태우는 제기이고, 향합은 향을 넣어 두는 제기이다. 신위전에서 세 번 향을 올릴 때(三上香) 동편에서 향을 받드는 집사자가 향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은 향로에 세 번 향을 넣고, 향로를 받는 집사자는 향로를 들어서 향로상 위에 올려놓는다.

축상은 초헌례에 대축이 독축을 할 때 사용하는 축문을 놓는 상으로, 축문상이라고도 한다. 축문은 축문판에 놓여져 축상 위에 놓이며, 독축이 끝난 후 망료례 때 태워진다.

(4) 촛대상

촛대상은 촛대를 올려놓는 상으로, 제향이 축시(丑時)를 전후로 진행되기 때문에 촛불을 켜다. 촛대상은 제사상 좌우에 놓는데, 여기에는 와룡촛대 2개를 놓고, 제사상에는 작은 촛대 2개를 올려놓는다.

촛대상 옆에는 촛불을 켜 놓았을 때 흘러내리는 촛농과 초가 타다가 남은 심지를 자를 때 사용하는 가위인 전촉자(剪燭子)와 절단한 초의 심지나 촛농을 담는 전촉기(剪燭器)가 놓인다.

(5) 아가상

아가상(阿架床, 雅佳床)은 술항아리 및 작을 올려놓는 상으로, 정자각의 동편에 놓인다. 아가상은 『상례보편』에 주정(酒亭)이라고 하는데, 정전 밖이나 정자각 등에서 술항아리를 올려 놓기 때문에 준소상이라고도 한다. 『경기전의』 및 전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문서인 『조정묘소상(尊所床)』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가상에 올리는 술항아리는 준(尊)으로, 일명 화룡자준(畫龍磁尊) 또는 사준(沙尊)이라 하며, 주해(酒海)라고도 한다. 보통 청화(靑畵)로 쌍룡(雙龍)과 운기(雲氣)를 표현하였다. 술항아리는 제향 때에 아가상 위에 잔과 함께 놓이는데, 헌관이 서향해서 지켜보는 가운데 잔에다 술(香醞)을 따라, 신문을 통해 신위전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술항아리 대신에 산과 구름의 형상이 새겨진 산뢰(山罍)를 사용하고 있다. 술잔도 작(爵)을 사용하며, 술도 청주(淸酒)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경기전의 진설 및 행례 내용이 능제향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산릉기신제에서 사용하는 산뢰와 작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6) 관세상과 망료상

관세상은 제향 때 헌관 및 집사가 손을 씻을 때 사용하는 관세와 수건 등을 올려놓는 상으로, 정전 앞 정자각 동쪽 계단 동편에 놓인다.

반면에 관세(盥洗)는 제관들이 행례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그릇이다. 관세 안에 물고기가 새겨져 있는데, 『상례보편』에는 물고기는 붕어(魴魚), 수초는 난초(蘭草)라고 밝혀 놓았다.

망료상은 망료기와 망료저를 올려놓는 상으로, 정전 앞 서편 망료위에 놓여진다. 제향 때 축문을 태우기 전 헌관에게 확인을 받을 때 사용한다. 망료기는 망료례 때 축문을 태우는 데 사용하며, 망료저는 망료기에서 축문을 집어서 잘 타도록 하는 도구이다.

(7) 잔과 작

진전 제향에는 원래 은잔(銀盞)을 사용하였다. 『국조오례의』에 은도금(銀鍍金)한 만루대(萬鏤臺) 잔(盞)을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경기전의』에도 은배(銀杯) 또는 은잔으로 진설도에 표기되어 있지만, 제향 홀기에는 '전작(奠爵) 등의 작을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 이에 앞서 영조대의 『국조속오례의』 「친향영희전의」 진설도에 잔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행례 내용에는 '집작(執爵)', '헌작(獻爵)' 등으로 되어 있어서, 『경기전의』도 이에 준해 작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작(爵)은 그 모양이 앞에는 부리가 있고, 뒤에는 꼬리가 있어서 새(雀)와 비슷하다고 하여 이름한 것이다. 작(爵) 상부 두개의 기둥은 술을 마심에 다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 지나침을 경계하기 위해 둔 것이고, 삼족(三足)을 마치 창과 같이 한 것은 지나치면 상한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둔 것이라 한다. 점(玷)은 작(爵)을 놓고 준(尊)을 받드는데 사용한다.

(8) 시접과 시저

시접(匙楪)은 숟가락과 젓가락(匙箸)을 담는 제기로, 뚜껑 한쪽의 판을 여닫을 수 있게 하여 이 부분에 걸치게 하였다. 시접은 『국조속오례의』 「친향영회전의」 부터 진설되었고, 『경기전의』에 면과 탕이 진설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이에 대한 정저(正箸) 행례 절차는 없었다. 다만 『홀기진설도』부터 시접 및 수라, 면(麵) 등을 진설하였기 때문에 이에 행례 상에도 수라에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바르게 놓는 삽시정저(挿匙正箸)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9) 수라기와 면기, 탕기

수라기(水刺器)는 임금께 올리는 진지를 담는 반기(飯器)이고, 면기(麵器)는 국수를 담는 제기이다. 경기전 제향에 수라기는 『홀기진설도』부터 보이며, 면기는 『경기전의』부터 보인다. 수라기와 면기의 진설로 인하여 시접이 함께 진설된 것으로 보인다.

탕기(湯器)는 탕을 담는 제기로, 『국조오례의』 진전속절제향부터 탕 3기를 진설하였다. 이 때 각색 탕선(湯膳)을 진설하는데, 육선(肉膳)도 겸행한다고 하였다. 현재는 큰 탕기에는 잡탕(雜湯), 작은 탕기에는 백청(白淸)과 개장(芥醬)을 담는다.

(10) 산자우리와 다식우리

산자우리(散子亏里)는 홍산자와 백산자를 담는 제기이고, 다식우리(茶食亏里)는 백다식과 황다식을 담는 제기이다. 그리고 중계우리(中桂亏里)는 약과류의 한과인 중계(中桂) 또는 중박계(中朴桂)를 담는 제기인데, 후에 약과를 진설하면서 약과우리(藥果亏里)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우리(亏里)는 산자와 다식 등을 괴는데 편하도록 울타리(우리)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위리(圍里)라고도 한다.

(11) 종자우리

종자우리(種子亏里)는 경기전 제향에 밤, 대추, 비자, 호두, 잣 등의 과일을 담은 제기이다. 종자우리(種子圍里) 또는 종자기(種子器)라고도 한다.

(12) 병기와 적기

병기(餅器)는 각종 떡을 올려놓는 제기이다. 진설도에는 둥근 원 안에 6기 병(餅)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원형 접시를 사용하였을 것이나, 현재는 떡을 괴기 때문에 사각 접시를 사용하고 있다.

적기(炙器)는 포적(炮炙) 등을 올려놓는 제기로, 『현행제사』 및 『홀기진설도』부터 보인다. 진설도에도 둥근 원 안에 포적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원형 접시를 사용하였을 것이나, 현재는 사각 접시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사각 접시는 올려놓는 제수에 따라 병기 또는 적기로 불리운다. 반면에 원형 접시에는 해태(김)나 도라지 등의 나물 등을 올려놓는다.

4) 경기전의 제물 진설의 변화

(1) 국조오례의 및 『경기전의』 대향의

경기전의 제수는 처음에 경기전이 속해 있는 전라도의 53개 읍에서 분정(分定)하여 마련하였다. 그러나 효종 9년(1658)에 각 읍의 폐단을 우려해 임시로 전주, 나주, 광주, 남원 등 4도관(都官)이 돌아가면서 제수를 바치게 하였고, 정조 4년(1780)부터는 전적으로 전주부에서 제수를 담당하게 하였다.³⁹

경기전의 제향은 속제(俗祭)이기 때문에 제수도 종묘 제사와 다르게 진설되었다. 처음의 제수 내용은 세종 29년(1447)에 상정되었다. 이 때 6 속절 제사(별제)의 제탁(祭卓)에는 화초가 있었는데, 첫째 줄에 중박계(中朴桂) 4기, 둘째 줄에 붉고 흰 산자 5기, 셋째 줄에 다식(茶食) 5기, 넷째 줄에 실과 6기를 진설하였다. 그리고 면협탁에는 화초가 없었는데, 첫째 줄에 떡 4기, 둘째 줄에 면, 잡탕 등 5기, 셋째 줄에 잔(盞) 3개를 놓았다.⁴⁰

이것은 『국조오례의』에 속제의 진설로 정해졌는데, 「문소전 의묘 사시속절진설도(文昭殿懿廟四時俗節陳設圖)」를 보면, 왕의 기신(忌辰) 및 진전의 속절도 이와 같다고 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병 6기, 탕 6기인데, 진전에는 병 6기, 탕 3기라고 하였다. 그리고 탕은 3기는 각색 탕선(湯膳)으로 육선(肉膳)을 겸하되 정해진 수도 없다고 하였다. 문소전의 경우 처음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소탕(素湯) 위주였는데, 이에 육선까지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향온을 담는 사준은 문밖의 좌측에 놓는데, 이에 만루대(萬鏤臺) 잔 3개를 준소에 함께 놓는다고 하였다. 세종 대에 비해 찬탁의 제수는 같으나, 면협탁의 경우에는 떡이 4기에서 6기로 늘었고, 면, 잡탕 등 5기에서 탕 3기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제수의 진설은 영희전의 속절 진설도에서 약간 변화되었다. 즉 『국조오례의』의 탕기 3기에서 『국조속오례의』에서는 2기의 탕기 이외에 면기, 다기, 시접 등이 진설되었다. 이 때 2기의 탕기는 소탕(素湯)이다. 이러한 제수의 진설은 『경기전의』에서 2기의 탕기와 1기의 면기로 축소되고 있다. 반면에 『경기전의』에서는 홍산자와 백산자의 위치를 명확히 기재하였고, 다식도 황다식, 백다식으로 구분해 놓았다.

『경기전의』의 제물봉상식(祭物捧上式)을 보면, 제향 1일전에 제물을 만든 후에 가자(架子)에 실어 서익랑 홍장(紅幟) 안에 보관하며, 전내에 2개의 탁자를 설치하여 상건(床巾) 및 좌면지(坐面紙)를 깔고, 좌우로 각각 촛대상을 설치한다. 그리고 제향일 삼경(三更; 23시-01시) 오점(五點)에 서익랑 홍장 앞에 나아가 봉한 것을 열고, 사경(四更; 01시-03시)에 이르면 촛불을 켜고 진설을 한다고 하였다.

이 때 진설의 내용을 보면, 『국조오례의』 및 『국조속오례의』와 달리 협탁과 찬탁의 구별 없이 제1행에는 중계(中桂) 4좌(坐), 제2행에는 홍산자는 3좌, 백산자는 2좌 등 산자(散子) 5좌(坐), 제3행에는 황다식은 3좌, 백다식은 2좌 등 다식(茶食) 5좌(坐)를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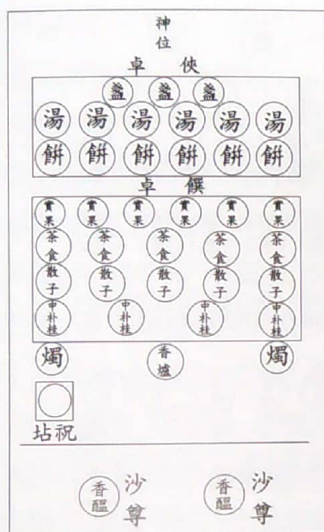
제4행에는 각색 실과(實果) 6좌(坐)를 진설하였다. 이전에는 대조(大棗; 대추), 황율(黃栗)

39 『宗廟修改膳錄』 권3, 庚午(1780년) 2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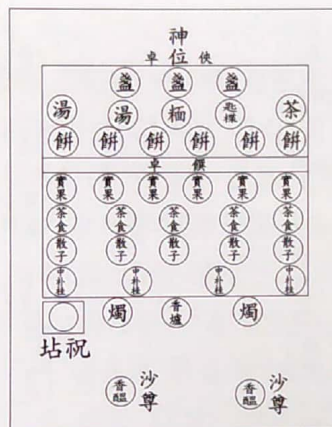
40 『世宗實錄』 권118, 세종 29년 11월 2일(신묘).

; 밤), 피진자(皮榛子; 개암, 후에는 은행을 대체함), 건시(곶감), 피비자(皮榧子; 비자), 피백자(皮栢子; 잣)를 놓았는데, 신정식(新定式)에는 백자(栢子; 잣), 협백자(挾栢子; 이전의 皮栢子), 비자(榧子), 진자(榛子; 개암), 대조(大棗; 대추), 황율(黃栗; 밤)을 놓았다. 이전에는 껍질인 채로 놓았는데, 신정식에서는 모두 껍질을 벗기고 진설하였으며, 건시 대신에 백자(栢子)를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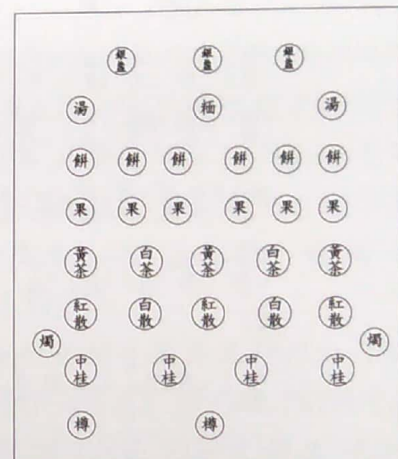
제5행에는 절병(切餅), 유병(油餅), 자박(自朴), 두단자(豆丹子), 당고(唐糕), 쌍화(雙花) 등 각색 병(餅) 6좌(坐)를, 제6행에는 면(麵) 1기(器), 포탕(泡湯) 2기(器), 제7행에는 은배(銀杯) 3좌(坐)⁴¹를 놓았다.



[그림6-4] 문소전진설도



[그림6-5] 영희전진설도



[그림6-6] 『경기전의』진설도

(2) 중앙대제

경기전의 속절 제향이 1908년에 「제사제도칙령」에 의해 1년에 2번, 청명과 추석에 지내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제수 내용도 개정되었다. 1908년의 『제물등록』에 경기전의 청명과 추석제의 제물과 고유제 때의 제물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밀과(蜜果)는 14기(器)로, 중박계(中朴桂) 4기, 백산자(白散子) 3기, 홍산자(紅散子) 2기, 전다식(煎茶食) 3기, 백다식(白茶食) 2기인데, 『경기전의』의 제1행, 제2행, 제3행의 내용을 합한 것과 같다.

그리고 실과(實果)는 6기로, 황율(黃栗; 밤), 대조(大棘; 대추), 실백자(實栢子; 잣),⁴² 신흔도(實胡桃; 호도), 실비자(實榧子; 비자), 건시(곶감)인데, 건시의 경우 예전에는 백자(栢子)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경기전의』의 신정식(新定式) 내용과 같이 껍질을 깠던 건과(乾果)를 진설하였는데, 이에 제외되었던 건시가 다시 포함되어 있다. 떡은 6기로, 자박(煮白), 경단(敬團),⁴³ 상화(霜花), 절병(切餅), 당고(唐糕), 유병(油餅)이다. 이것도 『경기전의』의 제4행과 제5행과

41 『慶基殿儀』 祭物捧上式.

42 『祭物膳錄』(1908년) 慶基殿瀆源殿告由祭每殿計에는 '협백자(挾栢子)'으로 되어 있다.

43 『祭物膳錄』(1908년) 慶基殿瀆源殿告由祭每殿計에는 '두단(豆團)'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같으나, 명칭만 조금 다를 뿐이다.

또한 이 때에 제주(祭酒)도 향온(香醞)에서 청주(淸酒)로 바뀌었다. 그리고 제6행에는 세면(細麵; 국수) 1기, 탕(湯) 2기를 진설하는데, 『경기전의』의 포탕(泡湯) 대신에 전증(煎蒸)과 백증(白蒸)으로 구분해 놓았다.⁴⁴

이러한 경기전의 제수의 진설은 1932년 『현행제사』 및 1937년의 『홀기진설도』에 와서 크게 변화되고 있다. 『경기전의』에는 총 7행으로 제수를 진설하는데, 『현행제사』 및 『홀기진설도』에는 총 6행으로 제수를 진설하고 있다.



[그림6-7] 『현행제사』 (1932년)



[그림6-8] 『홀기진설도』 (1937년)

『현행제사』에는 제1행에 중계(中桂) 3기를 가운데에, 그 좌우에 홍동백서(紅東白西)로 동쪽에 홍산자(紅散子) 2기를, 서쪽에 백산자(白散子) 2기를 진설하였으며, 제2행에는 서쪽으로부터 건율(乾栗; 밤), 호도, 비자, 송실(松實; 잣), 대추를 가운데에, 동쪽에 전다식(煎茶食) 2기를, 서쪽에 백다식(白茶食) 2기를 진설하였다. 이에 중계는 4기에서 3기로, 산자는 5기에서 4기로, 다식은 5기에서 4기로 줄어었다.

그리고 제3행에는 백청(白淸)을 가운데에, 동쪽에 자박병(煮朴餅), 상화병(霜花餅), 유병(油餅)을, 서쪽에는 절병(切餅), 남시병(南是餅), 유사병(油沙餅) 등 6기의 떡을 진설하였다. 제4행에는 잡탕(雜湯), 생선탕(生鮮湯), 포적(泡炙), 초강(醋薑), 생선적(生鮮炙), 백증(白蒸), 전증(煎蒸)을, 제5행에는 시접과 면(麵), 차(茶)를, 제 6행에는 잔 3개를 진설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제3행의 백청(白淸)과 제4행의 초강(醋薑)과 잡탕(雜湯), 생선탕(生鮮湯) 등의 탕과 포적(泡炙), 생선적(生鮮炙)이다. 이것은 『국조오례의』 및 『경기전의』 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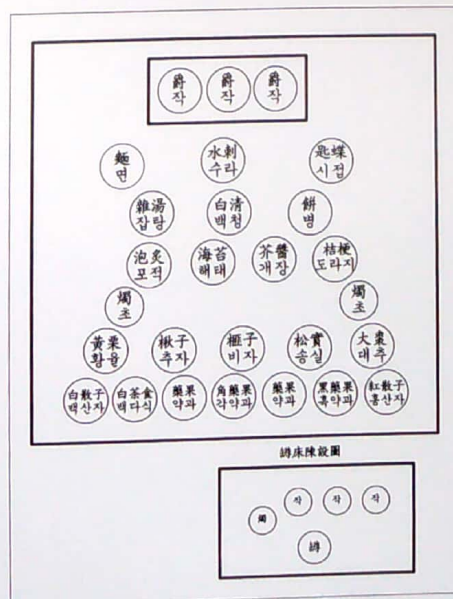
44 『祭物膳錄』 (1908년) 慶基殿 一位 二次祭(春秋) 淸源殿 同.

도에도 나오지 않는, 일반 집안 제사에서만 나오는 제수이다. 즉 백청은 꿀 또는 조청으로, 떡의 부속으로 놓던 것이며, 초강도 『주자가례』의 초(醋)의 진설에서 기인하여 이 역시 적과 탕 사이에 진설되어 있다. 그리고 탕도 소탕이 아닌 잡탕과 생선탕이 진설되고 있으며, 적도 처음으로 이 때부터 진설되고 있다.

『홀기진설도』도 위의 『현행제사』와 같이 6행으로 놓는데, 일부 제수 내용 중에 가감이 있으며, 진설 위치가 조금 다르다. 즉 1행과 2행은 같으나, 3행은 개장(芥醬; 간장)을 중심으로 동쪽에 길경채(桔梗菜; 도라지), 청태채(靑苔菜; 과래), 추이채(椎耳菜; 표고버섯) 등 채소 3기와 서쪽에 포적(泡炙), 백증(白蒸), 전증(煎蒸) 등 3기를 진설하였으며, 제4행에는 백청과 떡 6기 이외에 잡탕을 진설하였다. 그리고 제5행에는 시접과 수라(水刺), 차(茶), 면(麵)을, 제6행에는 잔 3개를 진설하였다.

여기서도 주목되는 것이 개장과 채소, 그리고 수라이다. 개장은 일종의 간장으로, 우리나라 제사상에서만 나물 사이에 진설하던 것인데, 이 때 길경채 등 채소를 진설하면서 민간의 집안 제사와 같이 개장을 진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장 큰 제수의 변화는 바로 수라의 진설이다. 이러한 제수의 변화로 인하여 행례상에 뚜껑을 열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는 계개정저(啓蓋正箸)와 젓가락을 물리고 뚜껑을 덮는 철저합개(撤箸闔蓋) 절차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때 수라에 숟가락을 꽂는 삽시(挿匙)와 철시(撤匙)의 절차는 행해지지 않았다.

위의 진설 내용을 보면, 현행의 중앙대제는 『홀기진설도』의 진설 내용을 주로 따르고 있는데, 일부 내용만 축소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현행 능 제향의 진설 내용과도 같은데, 제1행에는 백산자(유과), 백다식(참쌀과 조청으로 만든 다식), 약과, 각약과(백다식을 기름에 튀긴 약과), 흑다식(검은 참깨와 조청으로 만든 다식), 홍산자(붉은 유밀과)를, 제2행에는 황율(밤), 추자(호도), 비자, 송실(잣), 대조(대추)를 진설하고 있다. 제3행에는 포적(두부적), 해태(김), 개장(간장),



[그림6-9] 경기전의 중앙대제 진설도

길경(도라지나물)을, 제4행에는 잡탕(국)과 백청(꿀) 및 병(떡)을, 제5행에는 면(국수), 수라(밥), 시접을, 제6행에는 작 3개를 진설하고 있다.

현행 중앙대제에는 『홀기진설도』의 제1행과 제2행의 산자와 다식, 약과를 합하여 제1행으로 하되, 홍동백서의 의미로 진설하고 있다. 즉 중제 3기 대신에 약과 3기로 대체되고, 홍산자 2기는 1기로, 백산자 2기는 1기로 축소되었다. 실과의 경우는 그대로 5기이지만, 단지 호도(胡桃)만이 비슷한 추자(楸子; 가래)로 바뀌었으나, 현재는 호도로 대신하고 있다. 제3행에는 백중, 견중, 추이채만 빠지고, 개장을 중심으로 포적(두부적), 해태(김), 도라지나물을 놓고 있으며, 제4행에는 잡탕과 백청은 그대로 두고, 떡만 6기에서 1기로 축소하였는데, 대신에 찹질을 간 팔고물의 시루떡을 곁었다. 제5행에는 수라를 중심으로 서편에 면을 동편에 시접을 진설하였다.

『홀기진설도』에 비해 차가 빠졌고, 면의 경우 동편에서 서쪽으로 옮겨 진설하였다. 이것은 집안 제사에서 면(국수)을 서편에 진설하는 것과 같이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라와 면을 진설함에 따라 행례 절차에 순가락을 밥에 꽂고 순가락을 물리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제수 진설의 변화로 인하여 경기전의 제향도 속제에 맞추어 행례 절차도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